

(사)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제 21차 정기총회 개최

은 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(사)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지난 23일 충남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제 21차 정기총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. 연합회는 올해 환경기술인의 기술력 향상과 전문성 구축 및 위상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.

총 회는 각 지역협의회별로 참석자를 소개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다. 이어 하중호 부회장, 황수남 경남직전회장, 한상은 전북직전회장, 이석우 울산직전회장, 김금중 대전·충남직전회장 등 임기가 만료된 연합회 임원과 지역협의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. 이어 앞으로 연합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 올 한해 기술인들의 권익과 연합회의 발전을 위한 진용을 갖추었다.

연 합회는 올 한해 ◆환경보전을 위한 회원 활동 강화 및 전문 기술력 향상 ◆재정자립을 위한 수익 사업 개발 및 협의회 활성화 ◆산학연관과 업무협력체제 구축 및 연대강화로 조직 활성화에 사업 중점을 두기로 했다.

이 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◆제 2회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 규모 확대 ◆수질오염총량관리 정책설명회 활성화(4대강 유역별 순회) ◆대한민국환경기술장, 모범졸업생 표창 ◆환경부간부와의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◆회관건립기금 모금 활성화(계속사업) ◆환경기술 지원제도(환경홈닥터) 활성화 ◆환경기술인 실무교육 실시(계속사업) ◆환경오염방지 신기술 발표회 개최(6월 환경의 날 기념) ◆출판기획 사업 추진(월간지 자체제작 및 외주 출판사업) ◆해외산업시찰 및 전시회 참관 ◆연합회 임원 및 지역협의회장단 워크숍 실시 ◆국제환경기술전 전시회 및 세미나 실시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. ◀



제 21차 정기총회 개최 장면



이상호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 인사말



▲연합회 임원 소개



▲연합회장 임원들에게 위촉장 전달